

인권경영 선언문

삼양식품 주식회사

1961년 창업한 삼양식품은 '정직과 신용'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6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한국전쟁 이후 어렵게 끼니를 이어가던 국민들을 보며, '식족평천(食足平天)'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라면을 만들어 식생활 개선에 힘썼으며 인권경영과 사회공헌의 가치를 지향해왔습니다.

이에 삼양식품은 글로벌 식품그룹으로서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선언' 등의 인권에 관한 국제적 원칙들을 지지하고, 해당 원칙들이 반영된 국내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은 회사 경영 활동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잠재적 인권 위험요소들을 인지하겠습니다. 본 선언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현지 국가 법규와 상충될 경우는 현지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동시에 우리 대응이 국제적 인권 원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정신적 또는 신체적 구속을 통해 임직원들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아동의 노동을 금지 합니다.

2. 차별없는 고용 및 근무환경

성별, 신념, 종교, 나이, 장애, 출신, 인종, 민족, 국적, 병력 등에 대해 차별이 없는 고용·근무환경을 제공합니다.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합니다.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최저임금 보장, 노동시간 준수,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등을 일체 금지하며 결사의 자유보장, 노동조합의 가입과 활동 또는 결성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4. 산업안전 보장

내·외부 비즈니스 과정에서 모든 관계자들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통제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 및 법정교육을 준수하고 과로 및 감정노동 Risk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5. 책임있는 파트너 보호 및 관리

협력 및 거래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ILO가 권고하는 노동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비즈니스 관계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6. 지역주민의 인권과 환경 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대내외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심각한 환경훼손과 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7. '정직'과 '신용'의 가치 실현

창업정신인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준수, 반부패, 개인정보보호 준수, 지적 재산보호, 품질안전, 투명한 기업정보 공개 등 청렴한 경영 원칙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겠습니다.

위 7가지의 원칙을 삼양식품 '인권경영'의 기본으로 삼으며 철저히 지켜가겠으며, 삼양식품은 '사람'을 우선에 두고 풍요로운 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시민이 되겠습니다.

2021년 06월 07일
삼양식품 대표이사
정태운, 진중기